

문 대통령 호남 지지율 변함없이 확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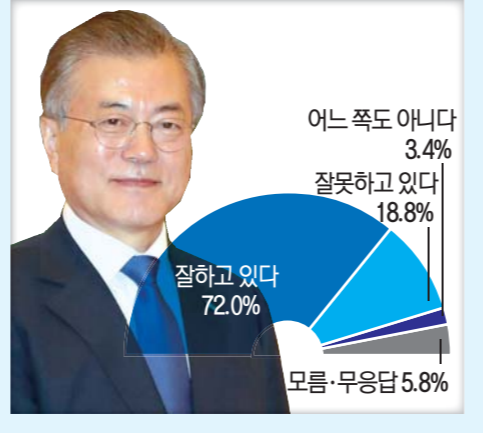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최고치 기록 지난달보다 3%p ↓
40대 지지율 82.2%로 '최고'
19~20대 46.5%로 극명한 차이
'조국 임명 논란' 시각차 드러나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이 확고했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논란을 빚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두고 세대간 시각차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이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정치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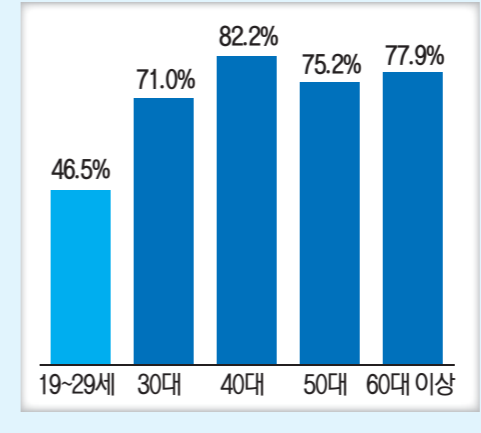
는 72.0%로 '잘못하고 있다' 18.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들어 70% 언저리를 넘나들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달 들어서도 큰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한국갤럽이 매달 실시한 대통령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지지율은 1월 72%, 2월 69%, 3월 68%, 4월 70%, 5월 71%, 6월 71%, 7월 72%, 8월 75% 등으로 2월과 3월을 제외하고는 70% 이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이 44~48%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호남의 지지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해주는 '반침대'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일 대립관계'가 시작된 7월과 8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현 정부의 대처에 대한 지역민들은 높은 평가를 내렸다. '조국 논란'에 직면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세대별 지지율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19~29세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46.5%로 전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체 지지율보다 25.5%p가 낮았으며 30대도 71.0%로 평균보다 낮았다. 40대에서는 82.2%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50대(75.2%), 60대 이상(77.9%)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이처럼 세대별로 지지율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는 '조국 논란'의 가장 핵심이 됐던 '자녀 진학 문제'에 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 연령별 지지율



조국 자녀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젊은이들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핵심이었던 20~40대가 균열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직업별 통계에서도 농·임·어업(75.6%), 자영업(74.0%), 블루칼라(70.3%), 화이트칼라(74.6%), 가정주

부(72.8%) 등은 모두 70%p 이상이었지만 학생 지지율은 55.2%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 지지율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긴 마찬가지다. 민주당 지지층들의 긍정평가는 86.6%로 가장 높았으며 민주평화당(72.7%)·정의당(71.6%) 지지층의 평가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은 부정적 평가가 66.3%, 88.5%로 대조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전남 시·도민 5천139명과 전화연결에 성공해 이중 1천3명(광주 503명·전남 500명)이 설문을 완료, 응답률 19.5%를 기록했다.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유선 19%, 무선 81%를 합산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 RDD(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의 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2019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를 할당해 무작위 추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청원기자 repo333@srb.co.kr

'민주당 67.1%' 지지세 꾸준...야당 반등 無

정당별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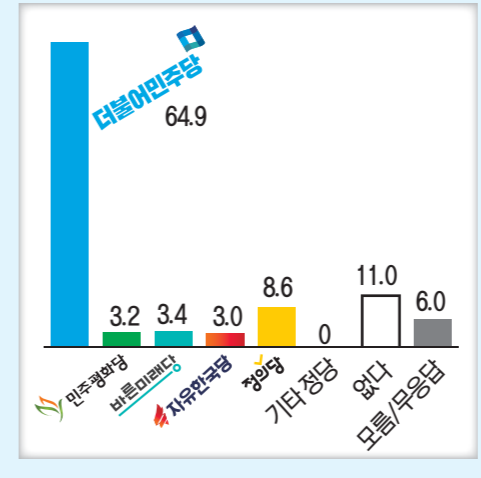
성별·직업 등 모든 부문 압도
청년층 지지만 과반 못 넘겨
야당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

광주·전남지역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부터 민주당이 60% 안팎의 지지도로 이어가는 가운데 다른 주요 정당의 반등도 없는 상황이다.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Gallup Korea)에 의뢰해 지난 5~6일 이틀간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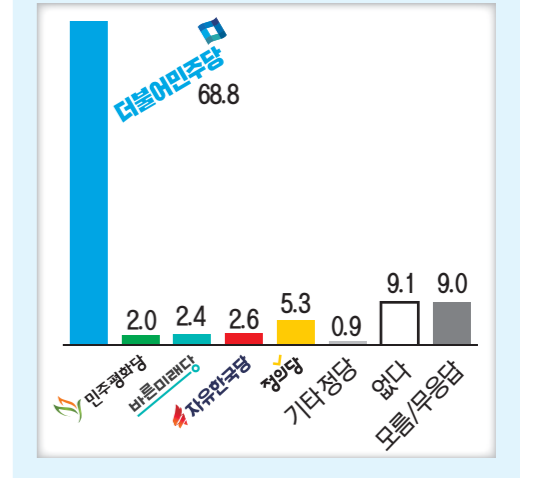
치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1%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에 이어 각 정당별 지지도는 정의당 6.7%, 바른미래당 2.8%, 자유한국당 2.8%, 민주평화당 2.5% 순이었다. 무당층(없다·모른다)은 17.6%에 달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59~63%, 평화당 1~4%, 미래당 3~5%, 한국당 3~5%, 정의당 8~13%, 무당층 16~20%를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평화당 지지도가 지난 8월 분당 영향으로 1%까지 떨어졌다가 2.5%로 상승한 점이 주목된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64.9%로 가장 높았으며 정의당 8.6%, 미래당 3.4%, 평화당 3.2%, 한국당 3.0%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7.0%를 차지했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68.8%, 정의당 5.3%, 한국당 2.6%, 미래당 2.4%, 평화당 2.0%, 무당층 18.1%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71.0%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남성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63.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 민주당 지지율은 자영업 70.9%, 농·임·어업 70.0%, 가정주부 69.4%, 화이트칼라 68.6%, 블루칼라 63.5%, 무직·기타 63.2%, 학생 53.6%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성별, 직업 등 모든 부문에서 민주당 지지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연령별로 민주당 지지 응답이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응답자의 74.0%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73.0%, 50대 67.7%, 30대 65.7% 순으로 많았다. 다만, 20대 이하 청년층의 민주당 지지 응답률은 48.2%로 절반에 미치

■ 광주지역 정당지지도 *단위%



■ 전남지역 정당지지도 *단위%



지 못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지지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잘해서'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다. '다른 정당보다 나아서'라는 응답은 11.3%, '여당이라서'는 10.4%, '지역색을 잘 대변해주는 정당이라서'는 5.7%로 나타났다. '소속 의원들이 좋아서'라는 반응은 0.7%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은

20.8%에 달했다. 청년층과 30대에서만 '전반적으로 잘해서' (15.6%, 13.4%)라는 응답보다 '다른 정당보다 나아서' (18.2%, 14.4%)라는 평가가 많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대원기자 ydy2132@srb.co.kr

이낙연 국무총리, 차기 대권후보 '1순위'

차기 대통령 선호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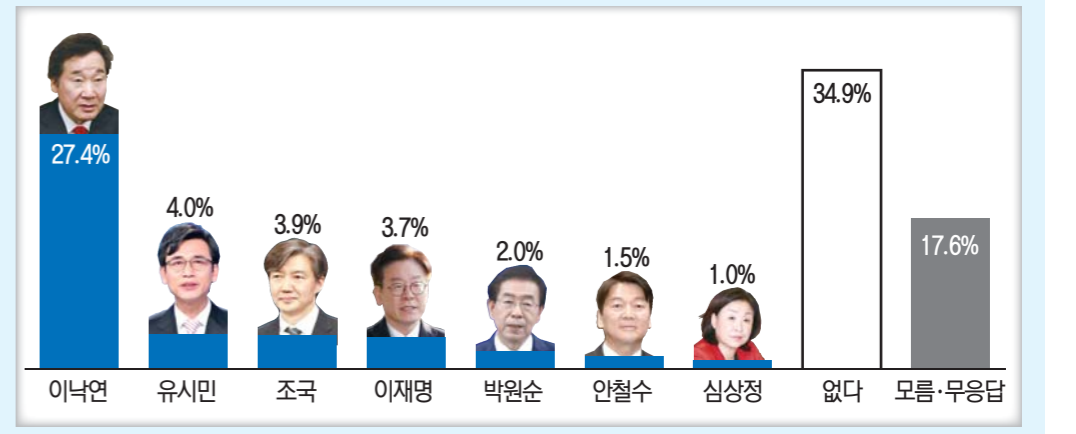
27.4% 유일 두자릿수 지지율
조국 후보자 3순위 진입 눈길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를 1순위로 뽑았다.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이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정치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선호 인물로 응답자의 27.4%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선택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3.9%, 이재명 경기지사 3.7%, 박원순 서울시장 2.0% 순이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1.5%)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1.0%)를 제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0.6%)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0.5%) 등은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는 앞서 실시했던 신년여론조사와 엇비슷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순위로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이 지난해 12월 27~28일 한국갤럽에 의뢰·실시한 여론조사의 '차기 대통령 선호인물' 결과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18.6%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유시민 이사장(6.3%), 3위 박원순 시장(5.8%) 등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가 3.5%

로 4위를, 안철수 전 대표가 1.4%로 5위를, 심상정 대표가 1.2%로 6위를 각각 기록했다. 8개월여 만에 다시 실시한 결과에서는 이 총리에 대한 지역민들의 선호 지지도가 8.8%p가 상승했으며 박 시장 자리에 조국 장관후보자가 들어가고 유 이사장의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을 뿐 다른 결과는 대부분 유사했다.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대선후보 구도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특히 이 총리 지지도를 지지정당별로 살펴볼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보다 호남기반 야당인 민주평화당 지지 응답자 쪽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이 총리에 대

■ 차기 대통령 선호 인물



한 선호도는 32.7%였지만 평화당 지지층의 선호도는 이보다 8.3%p가 높은 41.0%를 기록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총리가 차세대 주자로서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평화당 지지층에서 지역 출신 대선후보에 대한 열망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한국당 지

지층들도 황교안 대표(19.3%), 홍준표 전 대표(18.5%)에 이어 세번째로 이 총리(16.9%)로 선택하는 등 조사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이 총리를 손꼽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청원기자 repo333@srb.co.kr

